

세·태·진·단

급증하는 동성연애자

이방인인가, 속죄양인가

낙원동 일대 중심으로 확산, 사회적 연구 필요한 때

최근 우리나라 영화관에서 자연스레 마주칠 수 있는 게 '동성연애'에 관한 영화들이다. 유교적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언급조차 티부시되어 왔던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동성애의 뿌리는 깊다. 여성간의

동성연애자를 뜻하는 레즈비언이란 용어도 여성동성애자들이 많았던 레즈비언 섬의 지명에 유래를 두고 있다. 이태원에 주로 몰려있는 여장 남자들의 이야기나 게이바라는 특수지역을 떠나 우리 사회에 형성되어 온 동성애자들의 존재는 세계적인 추세와 더불어 점차 그 모습을 '가시화'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동성애자들이 생기는 것일까. 동성애자들의 증가는 단순히 은폐되어 있던 부분의 드러남인지 아니면 인간소외의 현대문명이 양산해 내는 또다른 인간의 자화상인지 아직 명확히 규명되고 있지 못하다.

감정적인 동성애자가 있을 수 있지만 동성애는 동성끼리

의 '섹스'라는 점을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심리학자들은 선천적인 이유와 함께 어릴 때 형성되는 성지향이 이성으로 또는 동성으로 어떻게 연결되느냐에, 그리고 주변의 환경에 따라 인간의 '성지향'이 바뀔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동성애에 대한 언급은 학문적으로나

실태파악의 면에서조차 거의 다뤄진 적이 없고 이에 '불문율'로 되어 왔다. 이런 불문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는 인구의 5%에 해당하는 2백만명에 달한다는 비공식적 추정이 나오고 있고 최근 더 집중하는 추세다.

최근 극비리에 동성연애자의 모임이 뜨고 '공식명합'을

내미려는 움직임도 접수되고 있다. 이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들의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조만간 우리 사회가 안게 될 '결코 쉽지 않은' 숙제인 것만은 사실이다.

동성애자들의 모임과 낙원동 일대를 찾아가 이들의 실태를 확인하는 지면을 마련했다.

낙원동 일대 현장스케치

동성애자수 2백만 추산, 가시적 모습 드러내기 시작

낙원동(樂園洞)이 지명 그대로 동성연애자들의 낙원(?)으로 변하고 있다. 몇년전부터 이 지역은 인근 극장가를 비롯해 공원 등지를 중심으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드는 장소로 변해 왔다. 조금만 더 관찰력을 갖는다면 어렵지 않게 이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되어버렸다.

종로구 낙원동 일대의 파고다 극장 주변에는 '여장' 남성들이 쉽게 눈에 띈다. 이들을 파트너로 구하려는 또다른 남성군들의 모습도 찾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지난 16일 토요일 밤 11경, 마지막회 영화가 끝난 후 극장을 나서는 일련의 남성들이 짝을 지어 어둠속으로 사라져 갔다. 이들이 몰려간 곳은 탑골 공원 뒷편에 자리한 게이 전용업소인 속칭 '보갈빠'였다. 보갈빠란 일반인들이 이들을 비하하는 의미로 갈보를 뒤집어 부르는 속칭이라고 한다.

이런 뻘은 파고다 극장 주변에서만 아니라 장충동 일대와 신당동 극장 주변, 이화여대 근처의 대현동, 이태원과 강남쪽에서도 형성되어 있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파고다 극장 주변에만 밀집했던 업소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며칠간 이곳 일대를 돌며 확인한 결과, 대다수의 동성애자들이 동성애의 길로 접어든 배

경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 졌다. 선천적으로 이성보다는 동성애에 더 많은 관심과 성애를 보이는 동성애자군과 환경의 영향이 그것이다. 선천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더 많아 감성이 남성 쪽으로 발달한 여성들은 레즈비언이 되는 것이고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은 남성들은 게이가 되는 것이라는 설명은 의학적으로 얘기되어 온 부분이기도 하다.

이밖에도 이성애와 동성애를 동시에 경험하는 양성애자들도 있었다. 양성 연애자들의 경우는 동성애 경험에 주는 욕망 때문에 남몰래 동성을 찾고 사는 이도 있다고 한다.

선·후천적인 영향 구분 없이 동성애자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비정상인'으로 취급당하는 현실에 대해 뿌리깊은 절망감을 가지고 있었다.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는데 왜 우리가 비정상인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는 것이 이들의 하소연이었다.

환경적인 영향으로 동성애자의 길로 접어든 게이들은 대개 남성 위주의 집단생활 도중에 동성애를 경험했다고 토로했다. 군대시절이나 남자 고등학교 재학시절, 외향선 근무 도중이나 교도소 등지에서였다는 고백이다.

김모(40, 부산시 거주) 씨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파트너를 구하기 위해 부산에서 상경한 김 씨에 따르면 부산 서면과 남포동 일대에도 동성애자들의 전용업소가 있다고 한다. 김 씨가 동성애자의 대열에 끼인 것은 30대 중반에 외향선을 탄 이후였다. 같은 동료들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발을 들여놓게 됐다고 한다. 김 씨는 이 사실로 인해 이혼까지 당한 후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지만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욕망때문에, 또는 자신의 선천적 성향 때문에 일반인과 '구별'될 수 밖에 없



탑골공원 벤치에서 담소를 즐기는 게이들. 현재 "교재중"이라는 이 두사람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았다.

는 길을 선택한 대다수의 김 씨들. 이 선택의 결과로 인해 겪어야 하는 고통의 무게도 만만찮았다. 오랜 세월의 역사속에서 단 한번도 정상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고통도 여기에 단단히 한몫하고 있다.

"마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마약"이라는 김 씨. 그는 자신이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자각'하고 있어 더 괴롭다고 하지만 요즈막에 만난 파트너들은 그의 이런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김 씨의 파트너인 박진영(24, 가명. 서초구 방배동 거주) 씨는 "좋아서 선택한 것인데 왜 후회하느냐"고 되물었다. 박 씨는 15세 때 연소가 관람볼로 영화를 보러갔다가 나이든 아저씨에게 당한 이후 이 길로 접어들었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현재 동거하는 남자가 있다. "매일 그의 시중을 들어주어야 하는 일이 약간 번거롭긴 해도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단지 고민이 있다면 집에서 결혼을 재촉하는 것이라고 한다. 1남4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난 박 씨는 "아들에 대한 지나친 기대가 너무 힘들었고 내가 남자라는 사실이 싫었기 때문에 더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강요된 아들로서의 역할보다 '선택한' 여성의 역할이 더 편안하다는 박 씨는 "내가 만일 여자와 결혼할 경우 남편으로서의 역할과 아빠로서의 역할, 사위와 집안의 장손으로서의 역할까지 떠맡아야 하는데 그런 일을 해낼 자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남성의 의무에 눌러 동성애자의 길을 택한 박 씨와는 달리 극심한 이성애 혐오증으로 인해 이 길을 택한 게이도 만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최고의 인텔리 계층의 집안에서 성장한 강모(30) 씨는 "부모들의 철저한 이중성을 보고 자라는 과정에서 이미 내 앞길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라고 모호하게 풀이할 뿐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강 씨는

부모를 "악마같다"는 말로 표현했다. 철저한 이중성을 무기로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그의 성가치관은 이성애에 대한 혐오감같은 것이 마음깊은 무의식 세계에 자리잡혔는지 모른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시각도 점차 유동성을 띠고 있다. 대학의 한 학생은 동성애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나타내면서도 "동성인 친구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친밀감보다 훨씬 진한 그 무엇"으로 동성애를 정의하며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따뜻한 인간적인 유대감이 발달할 경우 궁극적으로 동성애자가 되는 것 아닐까." 또 다른 학생의 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학자는 "동성애는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있어온 하나의 사랑 형태"라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원하지 않은 동성애 문화는 하나의 거대한 힘을 가진 문화군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국의 예를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동성애를 다룬 일련의 영화가 한국에서 개봉된 것만을 봐도 그 현상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동성애를 주제(혹은 소재)로 한 영화는 <필라델피아>와 <마담 버터플라이>, <결혼 피로연>, <클라잉 게임>, <패왕별희> 등. 이런 일련의 영화가 동성애 문화를 사회속에 공인화시켜가는 도구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 사회학자가 보는 시각이다.

동성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나 실태파악은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단계에 와있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다. 우리가 이들을 심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나 도덕적 판단과는 별개로 이들은 엄연히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명순 기자>

우리나라에도 동성연애자들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그 숫자가 무려 2백만명(비공식 통계)에 달하고 있으며 동성연애자들 간의 협회를 결성해 '동성애자로서의 정체성'을 담아내고자 물밑 작업중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국남성동성애자협회>와 <한국레즈비언협회>. 이름조차 생소한 이 단체의 협회 결성 시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한국 동성애자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관이 될 것으로 보이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자에게 애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월 ○일 ○○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모 여대 으스스한 화장실에 나붙곤 하던 회원 모집 스티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동성애자 단체가 더 이상 화장실같은 곳을 통해 회원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얘기다.

<한국레즈비언협회>와 <한국남성동성애자협회>는 지난

16일 한국 에이즈연맹과 함께 '우리나라 동성연애자 현황'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토론회의 목적은 '동성애자들의 정서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이들을 궁극적으로 에이즈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참석

<한국 에이즈연맹>의 서영주 씨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회적인 매장이나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이 얼굴을 드러낸 의미가 무엇이었는가?"라고 반문한다. 그는 "이제 우리 사회도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할 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동성애를 우리 사회의 한 '현상'으로 받아들이자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동성애에 대한 담론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현실속에서 붓물처럼 터져나올 동성애 문화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에이즈연맹>은 이와같은 맥락에서 보사부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현황 및 실태파악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에이즈연맹>의 이와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나라 최초로 동성애자의 생생 배경과 이들의 생활상 등이 점검될 것으로 보인다.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고민 시작돼야

동성애자들, 조직적으로 '권리' 주장할 것으로 보여

자들은 이 토론회에 대해 "동성애자들이 우리 사회에 첫선을 보인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비록 비공식적인 자리이긴 했지만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곳에 동성애자들도 똑같은 비중으로 자리를 메웠기 때문이라는 것.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박 씨가 게이 전용 출입입소를 가르쳐 보이고 있다. 이들은 외부의 시선이 차단된 이곳에서만 '자유'를 느낀다고 한다.